



전북도가 지난 31일 전주한옥마을에서 도교육청, 한국스카우트전북연맹과 함께 '도-도교육청-전북연맹 캠퍼리 협력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새만금 캠퍼리 협력사업 발굴 박차

도-교육청-스카우트전북연맹, 협력 강화 워크숍 개최 글로벌 과정활동·일자리 창출 등 6개 신규시책 발굴

전북도가 관계기관과 함께 2023 새만금 캠퍼리 성공개최를 위해 협력 체계를 정비하고, 2020년 협력사업 발굴에 나섰다.

전북도는 지난 31일 전주한옥마을에서 도교육청, 한국스카우트전북연맹과 함께 유가적 협력체계 구축 및 지속가능한 캠퍼리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도-도교육청-전북연맹 캠퍼리 협력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전북도 최용범 행정부지사, 도교육청 정병익 부교육감, 김문덕 한국스카우트전북연맹장 및 관계자 30

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그동안 도와 도교육청, 전북연맹 간 협력해 온 성과를 공유하고, 각 기관의 단계 확대 관련 추진사업 설명에 이어 앞으로 힘을 다해야 할 시책사업 발굴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에 발굴된 2020 신규 시책사업으로는 ▲학교 연계 글로벌 과정활동 추진 ▲장년 스카우트 일자리 창출 ▲캠퍼리 참가대원 '전북 뚝' 확대 ▲도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시 캠퍼리 연계 ▲학교대 및 청소년 활동 지원 확대 ▲2023 캠퍼리 지원 협의체 구성 등 6건이

제안됐다. 도에서는 2020년부터 캠퍼리 참가국과 도내 학교들이 사전 교류할 수 있도록 '학교 연계 글로벌 과정활동' 프로그램을 발굴하는데 양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면서, 도 글로벌 체험연수 시 캠퍼리 연계 추진, 스카우트 청년들의 '캠퍼리 설명단 구성' 등 4개 신규 사업 등을 제안했다.

도교육청에서는 학교 스카우트 활성화를 위한 점담교사 양성, 학교대 및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 확대 방안 등에 대하여 발표하고 청소년 단체 '사제 동행 동아리' 지원 등의 2020 사업을 설명했다.

전북연맹에서는 캠퍼리 '전북 뚝' 확대의 일환으로 기존 전북도 캠퍼리 참가대원 목표 500명을 1000명으로 확충하면서 세계스카우트캠퍼리를 통해 도내

청소년들에게 보다 풍부한 세계문화체험과 국제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의견을 제시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과 공감을 얻었다.

최용범 행정부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2023 캠퍼리는 도내 청소년들이 전 세계 170개국 4만여 명의 청년 외교관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라면서, "지역 청소년들이 글로벌 인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교육청, 전북연맹과 최선을 다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3개 기관은 실무간 협력 분위기를 확장하여 체계적인 협의회를 구성하고, 하반기 2020 시책 발굴보고회를 거쳐 3개 기관 협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과학교육원서 '찾아가는 청렴교육' 실시

전북도교육청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전북과학교육원을 시작으로 5일 기술직 직무교육, 12일 남원여고, 14일 익산교육지원청, 19일 산서중·고교, 20일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각각 청렴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직원과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등 450여명이 교육에 참여한다.

교육은 각 기관·학교별로 1~2시간씩 진행되는데, 송용섭 감사관과 내부 청렴감사가 나서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질의·응답시간도 갖는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달에도 안성초, 이리공고, 한국경마축산고, 장승고, 진안교육지원청 등 5개 학교·교육지원청에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장은성 기자

"6월에도 풍성한 학부모교육 함께해요"

도교육청, 달빛학교·독서교육·경제야 놀자 등 운영

전북도교육청이 6월에도 다채로운 학부모 교육을 운영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6월 한 달간 도내 유·초·중·고 학부모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6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사교육 Know! No! 함께하는 학부모교육 △일하는 부모를 위한 부모성장 달빛학교 △생명감수성 학부모교육 △학부모 독서교육 책소풍 △놀부(父)랑 놀자(子)-아버지 교육 △경제력 스스로 지키고 키우기, 경제야 놀자 등이다.

먼저 오는 4일부터 18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12시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강화를 위한 '사교육 Know! No! 함께하는 학부모교육'이 진행된다.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 새로운 미래 인재상과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선행학습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가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하는 부모를 위한 '부모성장 달빛학교' 역시 '사교육 Know! No! 함께하는 학부모교육'으로 진행된다. 4일 오후 7시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효능감을 높이는 '스스로 공부법'을 들려준다.

생명감수성을 키우는 학부모교육도 운영한다. 5일부터 19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12시 도교육청 8층 회의실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문명의 역습'을 주제로 진행된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책읽기와 독서습관 형성, 바람직한

토론문화 확산을 위한 '학부모 독서교육 책소풍'은 13일부터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8층 회의실에서 운영된다.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인 '놀부(父)랑 놀자(子) 아버지 교육'은 15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중·고생 자녀와 아버지를 대상으로 MBTI 성격유형검사를 활용해 닮은 듯 다른 아빠와 자녀의 소통과 공감을 주제로 진행된다. 또 건강한 경제생활을 돕고 일상 속 경제교육 기회를 제공할 '경제력 스스로 지키고 키우기, 경제야 놀자'는 오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6차시에 걸쳐 이루어진다.

한편 교육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도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 누리집(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취업의 문 '활짝'

전주비전대, 삼성중공업 기술연수원 취업약정형 협약 체결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는 삼성중공업(주) 기술연수원 및 4개 협력업체(대덕기업, 새길, 새싹테크, 한국ING)와 취업연계 및 교육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는 삼성기술원장, 삼성중공업과장, 대덕기업, 새길, 새싹테크, 한국ING 대표, 전주비전대학교 교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삼성중공업(주)이 수주한 LNG선과 관련한 필요 인력에 대해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협력업체로의 취업 연계를 위한 목적

이다. 이에 전주비전대학교에서는 4개 협력업체에 총 20명을 약정해 학생들의 실무교육 및 취업을 연계할 계획이다.

신입생 학생들은 협력업체의 숙식 제공과 복지혜택을 받으며 근무하게 된다.

홍순직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협약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생들, 캡스톤디자인·창업PT 대회 힘쓸어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 학생들이 최근 전북대 LINC+사업단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개최한 '2019 로컬 소셜 인노베이터: 대학생 캡스톤디자인 및 창업PT 경진대회'에서 대상과 금상, 은상, 동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올해로 3년째 맞는 이번 대회는 전북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캡스톤디자인 및 창업아이디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발표 역량을 높이고, 창조·혁신 아이디어를 발굴, 공유하기 위해 열린 것. 대회에서 전북대 '노타이틀'팀(전운성, 조성규, 고미진, 양은희, 이태규, 천기현, 지도교수 김명선)은 BI와 AI를 결합한 서빙 시스템을 발표하여 대상

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전주시 동부시장 거리활성화 기획안을 발표한 전북대 '이태조'팀과 ICT기반의 'Auto Smart Sunshade'를 발표한 전북대 '그늘이네'팀이 금상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해시태그'팀, '포어스'팀, 'Bright Vision' 팀은 은상을, '우리다움' 팀 외 7개 팀이 동상을 수상해 상장과 부상을 받았다.

입상한 학생들은 모두 전북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LINC+)사업단의 혁신역량 강화 교육과 다양한 지원을 받아 지역사회를 이끌 우수인재로 성장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전공체험 입시설명회 1만명 참여 '큰 호응'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고교교육 기여사업 일환으로 지난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 동안 실시한 '2019년 전공체험 및 학과탐방 행사'에 1만여 명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공체험·학과탐방과 함께 학생부종합전형을 비롯한 입시상담, 정보교류 등 다양한 정보제공의 자리가 됐다.

전공체험 및 학과탐방 행사에 전북대 100여 개의 학부(과)가 참여했으며, 도내 대학 및 전국 거점국립대학들도 입시상담 행사에 참여해 교육수요자들에게 다양한 대학체협의 기회를 제공했다.

전북대는 진로선택을 고민하는 고교생들에게 다양한 전공을 체험하도록 돕고, 또 자기주도적인 진로탐색 및 학과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전공체험 및 학과탐방 행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전북대 입학본부 관계자는 "전공체험 및 학과탐방 행사는 교육수요자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진로체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고교-대학연계 프로그램"이라며, "모든 참가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